

「집락 내 자급구상」을 실현시킨 집락영농

농사조합법인 오우미이(近江飯 팜)

시가현(滋賀県) 마이바라시(米原市)

집락영농의 가능성

지난 3월 11일 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집락 내에서 자급자족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힘을 강화시켜 재해시를 준비하는 집락이 있다.

시가현(滋賀県) 마이바라시(米原市)에 있는 이(飯)집락이다. 그 활동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집락영농조직의 농사조합법인인 오우미이(近江飯 팜)이다.

「집락영농을 하면,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오우미이(近江飯 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가와사키(川崎)(60세) 씨는 집락영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매일매일 설레었다고 한다.



▲ 집락의 논 앞에 선 가와사키(川崎)씨

두 가지의 선택



▲ 가지의 수확작업, 여성이 많고 즐거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飯)집락은 시가현 동북부 비와호(琵琶湖) 근처의 넓은 논농사지역의 안에 있다. 마을 전체의 가구수는 110가구의 작은 마을이다. 대부분이 겸업농가로 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의 평균면적은 3反(약 1,000평정도)이고, 교토(京都)까지 전차로 50분, 오오사카(大阪)까지 1시간반정도의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았다. 최근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가벼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대로라면 집락의 농업이 붕괴된다는 위기감으로 6년 전 현 조직의 전신인 집락영농조합이 탄생되어 작년에 법인화하여, 구성원 43명, 경작면적은 28ha인 농사조합법인 오우미이(近江飯 팜)이 탄생하게 되었다.

「영농조합을 추진할 때에 어떠한 농업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였지만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마을의 재산(논밭)을 지키고 계승하는 농업” 또 하나는 “이익추구형 농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를 통하여 전자를 목표로 하고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사실은 이 선택이 나중에 팜의 활동에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

집락에서 생산한 쌀을 집락 내에서 판매

먼전 팜의 운영에서 재미있는 것은 집락영농에서 생산한 쌀을 집락 내에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영농조합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이가 많아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집락사람들에게 “논(재산)을 지키는 대신에 집락에서 생산한 쌀을 매입하라”고 부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인기를 얻어 매년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최초 300가마정도였지만 5년 후인 작년에는 520가마로 늘었다.

회람판에 주문서를 첨부하여 봄에 예약을 받는다. 가격은 현미 한가마니(60kg)로 고시히카리 1만7천엔, 가을의 시 1만5천원, 찰쌀 1만8천원이다.

작년에 팜이 판매한 쌀 전체의 판매금액은 약 1,760만엔으로 그중 집락 내에서 판매한 금액이 약 860만엔으로 절반정도이다. 금액만 보면 판매량의 절반을 집락내의 사람들이 매입한 것이 된다.

「집락에서 매입하는 쌀 이외는 전부 농협으로 출하하지만 가격이 점점 내려 한가마니에 1만엔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집락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집락영농은 집락사람들이 지원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오우미이(近江飯 팜) 개요

오우미이 (近江飯 팜) 지대 9천엔 / 10a 구성원 43명
 (近江飯 팜) 노임 700엔/시간 (남29명, 여14명)

작업

경작면적	28ha	——	판매처
쌀	15ha	——	농협, 집락 내
보리	7ha	——	농협
콩	7ha	——	농협
채소	1.3ha	——	슈퍼, 미찌노에끼, 집락 내, 학교급식, 농협
가공			집락 내, 미찌노에끼 등 (장아찌, 잼)

매입하는 측도 기쁘다.

그렇다면 쌀을 매입하는 집락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령이기 때문에 농지는 팜에 맡긴다.」라는 기타무라씨(74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농지를 맡겼기 때문에 쌀도 사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은 지역의 맛있는 쌀을 슈퍼에서 사는 가격과 같이 살 수 있다. 주변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밥 먹으면 “밥맛이 좋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팜의 쌀은 저농약, 저화학비료로 생산한 것이고 농약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안심할 수 있는 쌀이다. 제조제도 보통은 2번 정도 사용하지만 팜에서는 1번으로 끝나고 잡초가 생기면 팜의 여성들이 잡초를 제거한다. 그러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산한 쌀을 사는 것이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배달도 해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주문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자신이 먹을 것 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년에 집락 내에서 쌀을 주문한 것이 80가구정도이다. 이(飯)집락 120가구의 70% 이상이 쌀을 구입한 것이다.

집락에서 생산한 채소도 집락 내에서 판매

쌀만이 아니다. 팜에서는 채소도 집락 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벼의 육묘하우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메론, 토마토, 딸기는 입소문이 퍼져 대부분 예약으로 판매가 완료된다. 4동의 육묘하우스의 면적은 전부 합하여 약 300평정도로 작지만, 예를 들어 메론은 추석연휴 때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고향에 내려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선물로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다. 1개 1,200엔 정도로 전체 판매액은 약 60만엔에 이른다.



▲ 벼 육묘하우스에서 여름에는 멜론을 재배. 박스재배도 최고의 맛을 낸다. 집락사람들에게 예약 판매.



▲ 직매소에 출하한 적과메론의 장아찌. 시원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딸기는 겨울의 수개월이지만, 수확이 시작되면 하우스 앞에 깃발을 세워두면 그 깃발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나 외부로 나갈 때 선물 등으로 집락사람들이 사간다. 1팩(300g)에 500엔으로 판매액은 약 70만엔 정도이다. 최근에는 딸기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약 10만엔 정도이고, 총 80만엔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 토마토는 미치노에키(道の驛)에 절반, 집락내에 절반으로 집락내의 매상은 약 40만엔 정도이다.

육묘하우스를 이용하여 약 180만엔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 이것과 쌀 판매액 860만엔을 합하면 1,000만엔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이 작은 집락에서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채소는 아직 시작이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집락 내 자금」이다.」

비축미 확보, 가설주택의 확보



▲ 집락의 비축미를 저장하고 있는 주정 창고

팜에서는 재해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비축미를 확보하고 있다. 집락사람들이 최저 3일간 먹을 수 있는 600kg을 집락내의 양조장에 보관하고 있다.

「보관료를 처음에는, 영농조합에서 지불하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자치회가 지불하고 있다. 집락을 위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와사키씨는 한신(阪神)대지진 때에 파이프하우스가 강도 면에서 가설주택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받아, 육묘하우스가 재해 시 임시 피난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락영농을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년 전에 자신이 국철직원을 조기퇴직 하였을 때 설마 여기서 영농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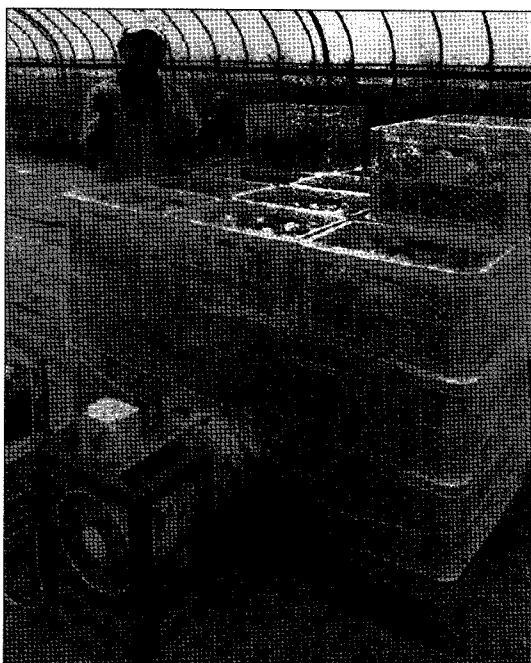
이익추구형 농업을 추구한다면...

팜은 이제야 뛰기 시작하였지만 돌아보면 처음에 “마을의 재산을 지킨다.”라는 목표를 걸고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쌀을 판매하는 것도 원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쌀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비축미의 확보도 마을을 지킨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시작하지 않았다.

「만약 집락영농이 없었다면 자기 혼자 20ha정도 영농을 수행할 각오는 하고 있었다. “우리 농지를 사용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때 그대로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였다면 마을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행복인가는 의문이다. 집락영농에서 『이익추구형 농업』을 목표로 하였어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필사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임금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다.



▲ 하우스 안에서 양파건조, 비닐로 막고 밑에서 송풍기로 송풍하면 빨리 건조시킬 수 있다.

「마을의 재산을 지킨다.」라는 생각은 팜의 작업임금에도 나타나고 있다.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나 잡초제거나 임금은 모두 일률적으로 시급 700엔으로 정하고 있다.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 1,000엔으로 올리면 그만큼 작업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임금으로서 지불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경영 상태라면 1,300만엔이지만 이것을 보다 많은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익추구」가 아닌 「마을의 재산을 지킨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가와사키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현재 임금이 낮다고 그만 두는 사람은 없다. 물론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쁘게 참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집락영농의 최대 메리트는 많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라고 가와사키씨는 말하고 있다. 손으로 제조하는 쌀을 생산하거나, 채소를 다품목 생산하거나 잼이나 장아찌 등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것, 회계도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것도 각각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머릿속에 지금은 집락영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석단과 같다고 생각한다. 강한 석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다란 돌도 필요하지만, 작은 돌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튼튼한 석단을 만들 수 없다. 집락영농도 같은 이치이다. 모두가 함께하면 그만큼 강한 지역이 된다고 생각한다.」 ㉔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1년 9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